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학생의 음주 영향요인

도은영¹, 홍연란^{2*}, 박해령³

¹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²순천대학교 간호학과, ³광주여자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Factors Affecting the Drink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from an Urban Area Populated with Low-Income Families

Eun-Young Do¹, Yeon-Ran Hong^{2*}, Hae-Ryoung Park³

¹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³Division of Liberal Arts & Teacher Train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학생의 음주실태와 음주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 음주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생 1192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Program으로 기술통계, logistic regression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음주 경험률은 44.1%로, 이 중 57.2%는 초등학교 혹은 그 이전에 첫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동기는 부모님 권유가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님의 12.0%는 자녀의 음주에 대해 무관심하고, 21.5%는 허용적이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외로움과 부·모 양육태도 점수는 각각 36.71점, 40.07점, 50.87점 이었다. 음주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은 학교생활만족도,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부의 양육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학생의 음주영향요인들을 고려한 음주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향후 일반청소년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factors affecting drink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from an urban area populated with low-income families to provide data necessary for drinking prevention. The subjects consisted of 1,192 middle school students. Analysis of collected data was carried out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19.0 software. The proportion of students who had drinking experience was 44.1%, among which 57.2% first experienced drinking during elementary school or earlier. The highest motivation for student's drinking was encouragement by parents at 48.9% while 12.0% of parents were indifferent to drinking by their children and 21.5% permitted drinking. Scores for subjects' loneliness, father's parenting, and mother's parenting were 36.71, 40.07, and 50.87, respectively. Factors affecting drinking were identified as school life, parent's attitude to children's drinking, and father's parent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drinking prevention programs for middle school students in urban areas with high populations of low-income families as well as follow-up studies over wider urban areas of low-income population.

Keywords : Drinking, Loneliness, Low-income, Middle School Student, Parenting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음주문제는 중요한 보건문제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로 인해 미성년자임에도

본 논문은 광주여자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Yeon-Ran Hong(Suncheon Univ.)

Tel: +82-61-750-3883 email: yrhong@suncheon.ac.kr

Received December 29, 2015

Revised (1st May 4, 2016, 2nd June 1, 2016)

Accepted June 2, 2016

Published June 30, 2016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음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 규제도 허술하여서 청소년 음주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질병관리본부가 2014년 전국의 중고등학생 72,0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음주율은 남학생이 20.5%, 여학생이 12.6%이며 문제음주율은 남학생이 8.0%, 여학생이 4.8%인 것으로 나타나[1] 청소년 음주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청소년기 음주는 뇌나 간을 포함한 여러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 뇌세포 파괴를 촉진하기 때문에 사고능력과 학습능력을 저하시키고[2], 흡연이나 다른 약물 사용의 관문이 되기도 하며, 오토바이 사고, 자살, 화상, 익사, 자살 등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3].

이러한 청소년 음주는 부모나 또래관련요인, 심리적 및 사회적인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 시기인 13~15세 때의 음주는 음주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4][5].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자녀의 행동에 무관심하고 거부적이거나 일관성 없는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의 자녀는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며[6]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7]. 그 외에도 독단적인 부모의 양육방식을 보인 경우 자녀들의 알코올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알코올 문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처럼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있어서 부모가 아주 의미 있는 존재로 역할을 하고 있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음주를 포함한 청소년의 행동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 심리적 요인인 외로움은 음주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과 관련성이 있거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9]. 새로운 정체감이 형성되는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 시기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시기이다. 실제로 2014년 청소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의 14.1%가 외로움과 고독을 ‘자살하고 싶었던 이유’라고 할 정도로 심리적 외로움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문제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10]. 하지만 외로움과 음주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일부 대학생[11]과 성인을 대상으로만[12] 실시되어져 왔고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을 대

상으로 한 외로움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의 경우 어떠한 환경에서 성장하는가가 아주 중요한데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경우 빈곤에 대한 해소책으로 술을 권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음주문제가 심하며 알코올 중독률이 높게 나타나[13] 이러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음주에 아주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 및 청소년 일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술, 담배, 도박 등 각종 비행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따라서 음주에 취약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관련 연구가 실시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음주관련 연구들은 대부분이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만 실시되어져왔고 부모와 관련된 음주영향요인도 부모의 음주여부 혹은 문제성 음주여부[7][15] 만을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학생의 음주실태, 부·모양육태도 및 외로움의 정도를 살펴보고 음주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서 향후 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학생의 음주정도 및 음주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음주관련 특성과 외로움, 부·모의 양육태도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외로움, 부·모의 양육태도, 음주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음주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학생의 음주정도, 심리적 요인인 외로움, 부·모 양육태도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음주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G광역시의 영구임대아파트 주변에 소재 하고 있고,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2곳을 대상으로 학교장과 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설문지의 취지와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 11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설문지에 성실하게 응답한 1192명을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을 때 유의수준 5%, 검정력 95%, odd ratio기준값을 1.3으로 하여 최소표본의 크기가 916명으로 대상자의 크기는 충족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외로움

청소년의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Rusell, Peplau와 Ferguson(1978)의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Loneliness Scale을 개정한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16]을 박선영(1998)이 청소년에 맞게 번안한 것으로[17] 총 20문항의 외로움 척도를 사용하였다.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9$ 였다.

2.3.2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허묘연[18]이 개발한 부모양육행동 43문항 척도 가운데 감독, 학대 및 방치 요인을 사용하여 현 시점에서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조사하였다. 감독, 비밀관성,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치 및 애정 등 8개 하위요인들 가운데 세 요인들을 선정한 이유는 청소년기에 부모의 감독이 중요하다는 점에 근거하였으며[19] 이와 동시에 반대 개념으로 학대와 방치를 포함한 15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양육태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감독의 특성이 높고 학대와 방치의 특성이 낮은 좋은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경우 Cronbach's $\alpha=0.82$ 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Cronbach's $\alpha=0.74$ 였다.

2.4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Ver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음주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외로움, 부·모양육태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관련변수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음주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학년은 2학년이 37.0%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종교는 있는 경우가 51.8%였고, 성적은 중이 56.1%로 가장 많았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가 60.0%, 만족함이 28.6%, 불만족함이 11.4%를 차지하였다. 음주예방교육은 66.3%가 받은 적이 있었으며, 부모님이 자녀의 음주를 반대하는 경우가 66.5%, 허용적이 21.5%, 무관심하다가 12.0%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19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1st	358	30.0
	2nd	441	37.0
	3rd	393	33.0
Gender	Male	586	49.2
	Female	606	50.8
Religion	Yes	617	51.8
	No	575	48.2
Academic achievement	Top	204	17.1
	Middle	669	56.1
	Bottom	319	26.8
School life	Satisfied	341	28.6
	Average	715	60.0
	Dissatisfied	136	11.4
Experience of drinking prevention education	Yes	790	66.3
	No	402	33.7
Parent's attitude to children's drinking	Against	793	66.5
	Indifferent	143	12.0
	Approving	256	21.5

3.2 대상자의 음주관련특성

대상자의 음주관련특성은 [Table 2]와 같다. 중학생의 44.1%가 음주경험이 있었으며, 음주경험자의 최초 음주시기는 초등학교 때가 46.0%, 중학교 때가 42.8%, 초등

Table 2. Drinking-related Characteristics (N=119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Drinking experience		Yes	526	44.1
		No	666	55.9
Drinking onset		<Elem. school	59	11.2
		Elem. school	242	46.0
		Middle school	225	42.8
Drinking motives		Parent's offer	257	48.9
		Peer pressure	53	10.1
		Curiosity	100	19.0
		Inadvertently	89	16.9
		Others	27	5.1
Route of alcohol access		Home	271	51.5
		Store	26	4.9
		Friend	74	14.1
		Others	155	29.5
Place of drinking		Home/Friend's house	307	58.4
		Playground	38	7.2
		Pub	20	3.8
		Deserted place/house	19	3.6
Those who have drinking experience	Drinking company	Others	142	30.0
		Self	24	4.6
		Friend, Senior	129	24.5
		Parent	285	54.2
		Adult relatives	64	12.2
	Drinking frequency (NO.)	Others	24	4.6
		Only once ever	179	34.0
		2~3 times ever	237	45.1
		1~2/year	26	4.9
		3~5/year	36	6.8
Drinking amount (glass)	<1/month	23	4.4	
	2~4/month	20	3.8	
	≥2~3/week	5	1.0	
	<1	292	55.5	
	1~2	126	24.0	
Experience of being drunk within 1 yr	3~4	51	9.7	
	5~6	27	5.1	
	7~9	13	2.5	
	≥10	17	3.2	
Difficulty for alcohol purchase	No	478	90.9	
	Yes	48	9.1	
	Very easy	41	7.8	
	Easy	95	18.1	
Experience of being drunk within 1 yr	Moderate	170	32.3	
	Difficult	77	14.6	
	Very difficult	143	27.2	

주) Elem. school=elementary school

학교 입학전이 11.2%로 나타났다. 음주동기는 부모님 권유가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술은 주로 집에 있는 술을 마신다가 51.5%로 나타났으며, 음주장소도 집이나 친구 집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음주대상 역시 부모가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음주빈도는 지금까지 딱 2~3번이 45.1%로 가장 많았으나 중학생의 약 10%는 한 달에 1번 내외로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량도 1잔 미만이 55.5%로 나타났으나 9.7%는 3~4잔씩 마시고 심지어는 10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도 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 취한경험이 있는 경우가 9.1%로 나타났고, 술 구입의 용이성은 보통이다가 32.3%로 가장 많았다.

3.3 대상자의 외로움과 부모 양육태도

대상자의 외로움 평균점수는 36.71점,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40.07점,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50.87점이었다 [Table 3].

Table 3. Loneliness and Parenting

Item	Range	Min	Max.	M ± SD
Loneliness	4~80	20	72	36.71±8.75
Father's parenting	15~60	14	48	40.07±5.00
Mother's parenting	15~60	18	60	50.87±5.77

3.4 음주정도와 제변수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음주정도는 학년($r=.084, p=.004$), 성별($r=.092, p=.001$), 성적($r=.082, p=.004$), 학교생활만족도($r=.105, p<.001$),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r=.170, p<.001$)는 정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학생이고, 성적이 하일수록, 자녀의 음주에 대해 부모의 태도가 허용적일수록 음주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양육태도($r=-.146, p<.001$), 모의 양육태도($r=-.092, p=.002$)와 음주정도는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부와 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음주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Drinking and the Study Variables

	r	p
Grade	.084	.004
Gender	.092	.001
Religion	-.027	.353
Academic achievement	.082	.005
School life	.105	<.001
Experience of drinking prevention education	-.027	.343
Parent's attitude to children's drinking	.170	<.001
Loneliness	-.050	.085
Father's parenting	-.146	<.001
Mother's parenting	-.092	.002

3.5 대상자의 음주 영향 요인

대상자의 음주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형계수의 카이제곱값이 67.215($p < .001$)으로 유의하며, Hosmer와 Lemeshow검정결과, 본 연구의 회귀 모형은 적절하였다. 대상자의 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일반적 특성(학년, 성별, 성적, 학교생활만족도,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태도), 부의 양육태도와 모의 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였고 종속변수는 대상자의 음주경험으로 하였다.

학년, 성별, 성적과 모의 양육태도는 대상자의 음주경험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의 경우에 학교생활에 불만족할수록 음주를 경험할 교차비가 음주경험을 하지 않을 교차비보다 1.23배만큼 증가하였고,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가 허용적일수록 음주경험을 할 교차비가 1.56배만큼 증가하였으며, 부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음주경험을 할 교차비가 0.97배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Factors Affecting Drinking

Variables	B	S.E	OR	95% CI		P
				Lower	Upper	
Grade	.002	.076	1.00	0.86	1.16	0.98
Gender	.216	.124	1.24	0.97	1.58	0.08
Academic achievement	-.087	.088	0.92	0.77	1.09	0.32
School life	.206	.096	1.23	1.02	1.48	0.03
Parent's attitude to children's drinking	.445	.074	1.56	1.35	1.80	0.00
Father's parenting	-.029	.011	0.97	0.95	0.99	0.01
Mother's parenting	.004	.013	1.00	0.98	1.03	0.74

4. 논의

본 연구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학생 1192명을 대상으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향후 음주예방 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음주관련특성에서 음주경험률은 44.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에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1] 29.8%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의 음주 경험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음주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한 Saxena, Sharma와 Maulik[20]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시기의 음주경험은 언제라도 문제음주로 이어져서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다른 약물 사용, 청소년 비행 및 각종 사고 등을 유발한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21]. 따라서 음주예방 대책에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접근 이외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개별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음주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46.0%는 초등학교 시절 그리고 심지어 11.2%는 초등학교 이전에 첫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조기음주의 하향화 추세를 엿볼 수 있었다. 음주자가 어리면 어릴수록 신체의 모든 조직들이 미성숙한 상태여서 음주로 인한 독성화가 쉽고 그로 인한 피해도 크기 때문에[3] 음주관련 교육 실시를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실시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실제로 15세 이전에 음주를 시작한 청소년은 21세 이상에서 음주를 시작한 것보다도 알코올 남용 및 의존이 될 가능성이 4배 이상이나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 또한 청소년들의 뇌는 16세 때 완성이 되므로 16세 이전에 술을 마시게 되면 뇌의 손상을 가져와 학습장애와 성장호르몬 분비가 억제되어 발육부진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2]. 따라서 음주 시작 연령의 하향화를 막기 위한 조기 음주예방교육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자의 33.7%는 음주예방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의 음주예방교육을 포함한 음주통제 정책이 중학생의 음주지식,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22]를 통해서 볼 때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음주예방교육이 실시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술을 마시게 된 동기는 부모님이나 친척의 권유로 마신 경우가 48.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호기심으로 인하여 술을 마신 경우가 19.0%로 나타났다. 음주를 하는 장소 역시 자거나 친구의 집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음주문제에 대해 관심과 주의를 가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술을 같이 마시는 대상자로는 부모님이 54.2%로 나타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음주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자녀들의 음주에 대한 분명하고 엄격한 태도를 가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술을 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음주량을 살펴보면 3~4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가 20.5%이고 그 중에서 심지어는 10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도 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의 음주량도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9.1%는 1년 한 해 1회 이상 취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서 이러한 음주형태는 부정적인 경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로 보인다. 청소년 시기 과음은 폭력과 절도, 성범죄 등의 범죄와 학업부진, 비행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3] 음주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주기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청소년들은 특히 조기에 선별하여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주류 사용과 구매를 차단하기 위해서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자들이 술 구입이 매우 쉽다(7.8%, 쉬운 편이다 18.1%, 보통이다)가 32.3%인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법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1] 청소년들이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술을 사려고 시도한 학생 중 남학생의 77.0%, 여학생의 77.5%가 술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주류 판매소 및 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주류판매 금지와 법적인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상자의 음주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은 학교생활만족도, 자녀음주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부의 양육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가 허용적일수록 음주를 경험할 오즈비가 1.56배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경험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음주태도가 허용적이면 청소년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 선행연구들[23][24]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부모님의 12.0%는 자녀의 음주에 대해 무관심하고, 21.5%는 허용 적이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들의 음주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자녀들의 음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25]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시기 음주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고 자녀가 음주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중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을수록 술을 마실 가능성의 오즈비가 술을 마시지 않을 오즈비에 비해 1.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와 청소년의 흡연, 음주 및 비행행동과 관련성이 높다고 한 Kim과 Neff[2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였다. 그 외에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청소년들은 자아효능감이 떨어지고, 학업성취가 낮아지며 그 결과 학교생활만족도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고[24] 하여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일부 학교에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소득층 밀집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관심 있는 보살핌과 또래 학생들의 지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친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음주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은 부모가 통제나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을 때 음주, 흡연, 약물남용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An, Park과 Shin[6]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였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에 모친보다는 부친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자녀 학대와 관련한 연구에서도[25] 저소득층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아버지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일반 아동은 어머니가 주된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에는 부친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로움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의 정도는 음주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3-15세 청소년들중 남학생과는 달리 외롭다고 느끼는 여학생은 술을 많이 마실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고[9], 성인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에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경우에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따라서 추후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외로움과 음주와의 관련성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로움의 경우 평균 점수는 36.71점으로 나타나 서울 경기 지역 소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외로움을 측정할 결과[26] 일반 가정의 중학생은 37.90점으로 본 연구 대상

자의 외로움 점수가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학생이 예상과 달리 일반 가정의 중학생 보다 오히려 외로움을 조금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이나 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사 제도 등 각종 복지혜택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측정 가능한 외로움 점수의 범위가 20~80점인데 본 연구에서는 20~74점으로 나타나 외로움의 정도가 매우 폭이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외로움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고[9], 자살 시도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어서[27]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학생중 외로움의 정도가 심각한 학생들은 조기에 선별하여 중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중 남학생일수록 음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1] 음주율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약 8%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주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중학생의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금주 의도가 약해지고 음주충동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28], 일치하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예방교육이 실시는 되고 있지만 교육내용이 단순히 음주에 대한 지식과 정보전달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향후 체계적인 음주관련교육이 실시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학생의 음주실태를 살펴보고 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음주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학생들의 음주 경험률은 44.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이 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이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적절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밀집지

역 중학생 학부모의 약 1/3이 자녀의 음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가자녀의 음주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음주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서 자녀들에게 술을 권하지 않도록 하고 음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의 양육태도가 대상자의 음주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부모교육시 부모의 양육태도 요소들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로움의 경우 최근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복지사 제도 등 각종 복지혜택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 음주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 나타났으나 외로움이 심한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최근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음주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경험의 영향요인을 알아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사료된다. 또한 청소년 음주영향요인으로 기존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실시되지 않았던 부·모 양육태도와 외로움을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일개 지방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일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학생 모집단을 완전히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주실태와 음주영향요인을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고 일반청소년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Statistics for the 10th investigation on adolescence health behavior*, 2014.
- [2] S. Bava & S. F. Tapert, Adolescent Brain Development and the Risk for Alcohol, *Neuropsychology Review*, Vol.20, pp.398-413, 2010.
DOI: <http://dx.doi.org/10.1007/s11065-010-9146-6>
- [3]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Underage drinking*, 2015. From: <http://www.niaaa.nih.gov/publications/fact-sheets>, (accessed Nov 14, 2015)

- [4] J. C. Cho & S. S. Chun, A study of drinking prevalence and drinking levels, related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among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s*, Vol.9, No.2, pp.41-55, 2008.
- [5] J. D. Jang, S. Y. Han & M. S. Lee, Impact on the health behaviors of children by high risk alcohol drink behavior of par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8, pp.3858-3865,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8.3858>
- [6] R. R. An, W. Y. Park & I. Y. Shin, The effect of father's self-esteem and child rearing attitude on children's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6, pp.2645-1652,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6.2645>
- [7] H. K., Park, & S. Y. Park, Father's parenting behavior, son's emotional regulations related son's aggress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y Association*, Vol.40, No.8, 87-98, 2002.
- [8] J. A. Patock-Peckham & A. A. Morgan-Lopez, College drinking behaviors: Mediation links between Parenting Styles, parental bonds, depression, and alcohol Problem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Vol.21, No.3, 297 - 306, 2007. DOI: <http://dx.doi.org/10.1037/0893-164X.21.3.297>
- [9] A. Stickley, A. Koyanagi, R. Kuposov, M. Schwab-Stone & V. Ruchkin, Loneliness and U.S. adolescents: a cross-sectional study, *BMC Public Health*, Vol.14, No.366, 1-12, 2014. DOI: <http://dx.doi.org/10.1186/1471-2458-14-366>
- [10] Statistics Korea, *Statistics for adolescence*, Seoul, Korea, 2014.
- [11] M. K. Park & K. H. Chung, Social Support, Loneliness, Alcohol Us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8, No.1, pp.72-83, 2002.
- [12] S. L. Canham, P. M. Mauro, C. N. Kaufmann, & a. Sixsmith, Association of Alcohol Use and Loneliness Frequency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 Drinker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pp.1-18, 2015. DOI: <http://dx.doi.org/10.1177/0898264315589579>
- [13] Y. J. Lee, H. K. Kim, M. Y. Lee, J. H. Yoo, S. J. Park & K. D. Yeu, Alcohol status and related factors of drinking problems among residents at permanent rental apartm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2 pp.1227-1239,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2.1227>
- [14]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omprehensive survey on children*, 2013.
- [15] G. S. Kong, The impact of maternal problem drinking on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 Focus on parenting as mediato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No.13, Summer, pp.1-27, 1999.
- [16] D. Russell, L. A. Peplau, & M. L. Ferguson, Developing a measurement of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42, No.3, pp.290-294, 1978.
- [17] S. Y. Park, *The relations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loneliness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998.
- [18] M. Y. Huh,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ventory fo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12, No.2, pp.170-189, 2004.
- [19] G. R. Patterson & M. Stouthamer-Loeber.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s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Vol. 55, No. 4, pp.1299-1307, 1984.
- [20] S. Saxena, R. Sharma & P. K. Maulik, Impact of alcohol use on poor families: a study from North India, *Journal of Substance Use*, Vol.8, No.2, pp.78-84, 2003.
- [21] The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Underage drinking, *Alcohol Alert*, No.67, pp.1-7, 2006. From: <http://pubs.niaaa.nih.gov/publications/AA67/AA67.htm>(accessed Nov 14, 2015).
- [22] B. H. Lee & A. L. Sohn, The effects of alcohol control policy on alcohol-related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s*, Vol.9, No.2, pp.103-111, 2008.
- [23] Y. M. Kim & J. A. Neff,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parental influence upon adolescent alcohol use: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Substance Abuse*, No.19, pp.244-260, 2010.
- [24] R. Roberts, M. Beckwith, & D. Watts,. Mother's intentions to introduce their adolescent o alcohol use: Does mother's alcohol use effect intention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Health*, Vol.24, No.34, pp.281-287, 2009.
- [25] N. Kim & M. Kwon, Comparison of middle school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alcohol use according to the level of parent's alcohol consump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Maternal and Child Health* Vol.15, No.2, pp.206-215, 2011.
- [26] C. A. Chun, Children' life at school: Focusing on school satisfaction, delinquent behaviors, and school violenc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No.220, pp.27-36, 2015.
- [27] Y. K. Sung, B. B. Baek, K. H. Yoon, A research on students' school-life satisfaction and effects of intensive support in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priority zone project,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35, No.3, pp.23-46. 2008.
- [28] Y. S. Jeon, S. H. Roh, *Crime Victim and Protection of Children in Low Income Famil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11.
- [29] J. M. Kim & A. J. Yoo, Depression and loneliness of adolescents from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12, No.4, pp.159-176, 2005.
- [30] Y. M. Lee, Relationship Self-control, Stress, Lonelin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12 pp.5541-5549, 2011.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1.12.12.5541>
- [31] K. H. Suh & S. A. Yang, Relations of the knowledge of alcohol effects and attitudes toward alcohol use to

factors of the drink behavior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s*, Vol.11, No.1, pp.15-26, 2010.

도 은 영(Eun-Young Do)

[정회원]



- 2005월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알코올 및 약물오남용

홍 연 란(Yeon-Ran Hong)

[정회원]



- 2001년 8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순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 및 청소년 건강증진

박 해 령(Hae- Ryoung Park)

[정회원]



- 2010년 2월 : 전남대학교 뇌과학 협동과정(이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조교수

<관심분야>

생화학, 분자생물학, 천연물생리학, 예방치의학